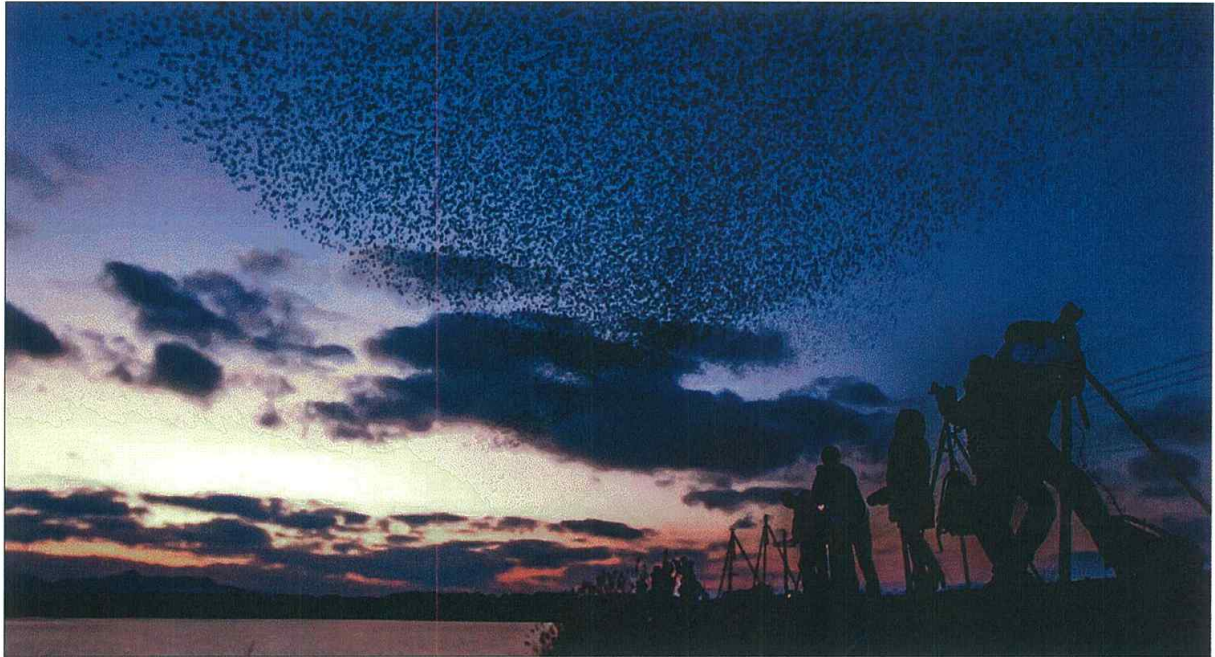


<2015.01.12.~2015.01.13.>

전북매일신문

2015년 01월 12일 월요일 001면 종합



하늘을 수놓은 가창오리 군무 겨울철 가창오리 주요 체류지 중 한 곳인 고창 동림지에 10일 약25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모여든 가운데 이날 해질녘 하늘을 수놓은 다양한 모양의 환상군무가 펼쳐져 이곳을 방문한 탐조객들과 전국에서 찾아온 사진작가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사진=김종재 기자(haram7895@)

전북중앙

2015년 01월 13일 화요일 012면 지역

개구리-사슴벌레 뛰노는 고창 용계마을 횡단보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



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되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 아산면 용계생태마을 '개구리 횡단보도' 눈길

사람·자연 더불어 상생 의미
관광객에 볼·생각거리 제공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귀농인들이 만든 '개구리 횡단보도'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개구리나 참게, 사슴벌레, 무당벌레, 누에 등을 위한 횡단보도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이 조심하게 돼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구리 횡단보도는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것이라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귀농인들이 만든 '개구리 횡단보도'.

남궁경중 기자

생각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렸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개구리 횡단보도'외에도 그동안 교육받은 솜씨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도 펼쳤으며 마을의 향토음식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게 될 용계마을만의 '생태 밥상'도 개발하고 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참게·무당벌레가 반기는 새 명물”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개구리 횡단보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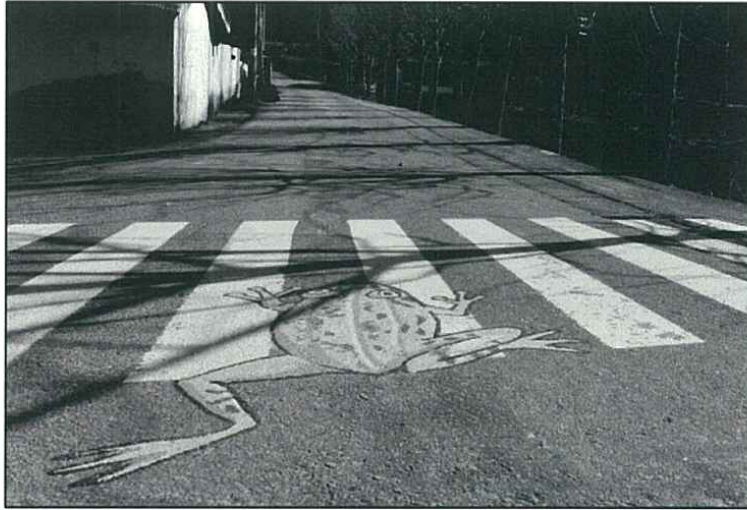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돼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

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개구리 횡단보도’ 외에도 그동안 교육받은 솜씨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마을의 향토음식자원을 조사해 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게 될 용계마을만의 ‘생태밥상’도 개발하고 있다.

/고창=박용관 기자(sco0747@)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 ‘화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곤충을 주인공으로 그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되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

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개구리 횡단보도’ 외에도 그동안 교육받은 솜씨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마을의 향토음식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게 될 용계마을만의 ‘생태밥상’도 개발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개구리 횡단보도.

‘개구리가 반겨주는’ 고창 용계마을

생태마을 특성 반영... 새로운 명물 조성 기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돼 주민들의 보행안전

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 여행문화원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고창 아산면 용계마을 개구리 횡단보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개·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되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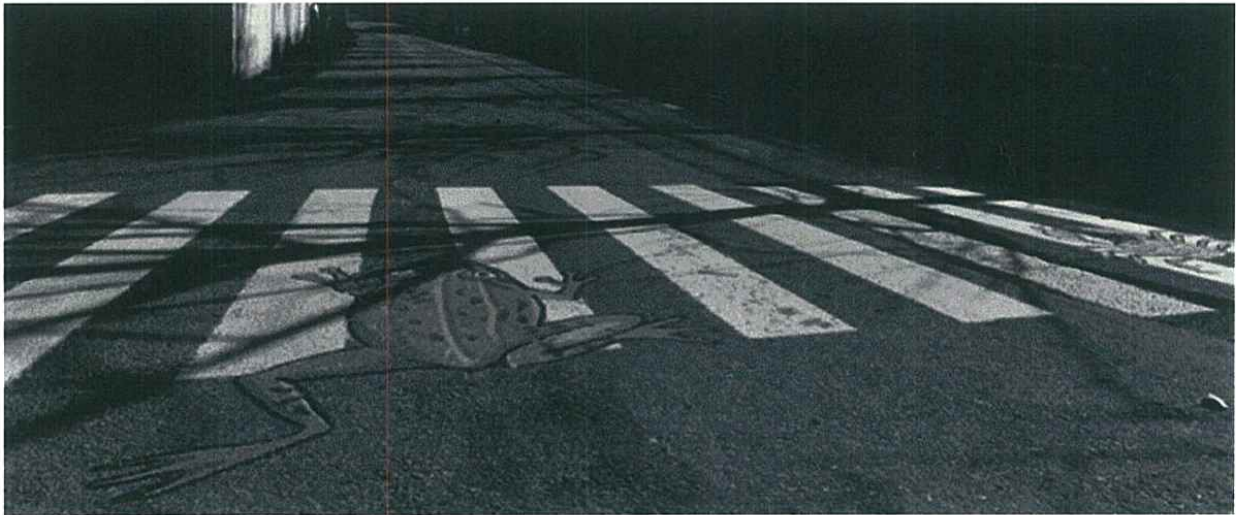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

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 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개구리 횡단보도’ 외에도 그동안 교육받은 솜씨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마을의 향토 음식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게 될 용계마을만의 ‘생태밥상’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아산 용계마을은 최근 전라북도 최초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품고 있어 4계절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환경위생사업소 자연생태보전담당 (황민안) 560-2878 /백일성 기자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 그려진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 생태마을 명물된다

고창 아산 용계마을 귀농인들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 그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되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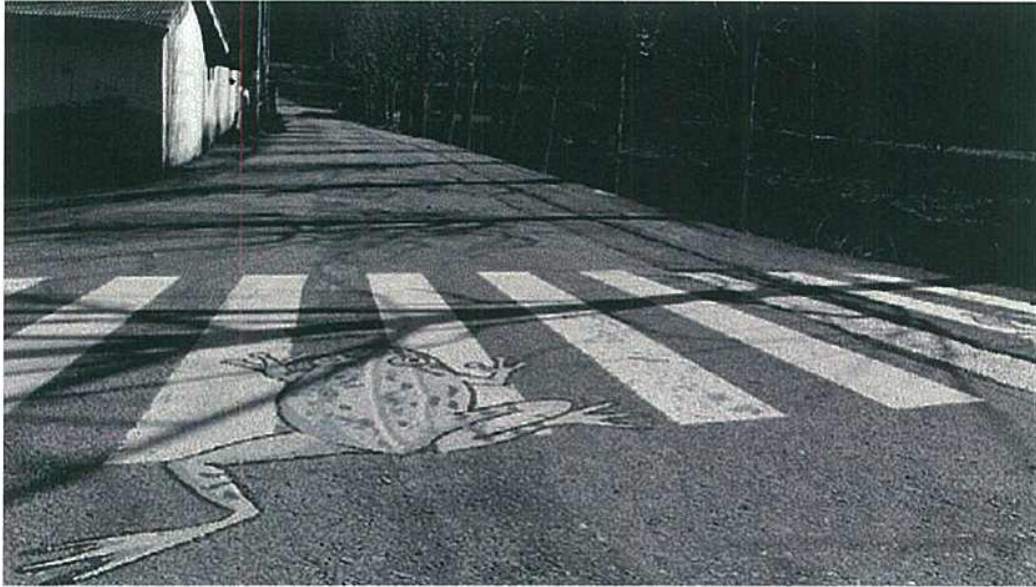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했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개구

리 횡단보도’ 외에도 그동안 교육 받은 솜씨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마을의 향토음식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게 될 용계마을만의 ‘생태밥상’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아산 용계마을은 최근 전라북도 최초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품고 있어 4계절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고창 명물 ‘개구리 횡단보도’ 화제

용계마을, 참게·누에·무당벌레 등 생태마을 특징 한눈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돼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더욱 깊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고창 아산면 용계마을 개구리 횡단보도 '눈길'

생태마을 특성 선보이기 위해 기획... 새로운 명물로 부상 기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안길 주요 지점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커다란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조심하게 되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그려서 의미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마을로 유명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더욱 깊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개구리 횡단보도' 외에도 그동안 교육받은 솜씨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

러 마을의 향토음식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게 될 용계마을만의 '생태밥상'도 개발하고 있다.

/고창=조종욱 기자



전국 > 전북

전국 최초 '개구리 횡단보도'...고창 용계 생태마을에 설치(종합)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5.01.12 15:43:23 송고



습지 성공모델 마을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설치돼 화제다. 2015.01.12/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원평댐 입구 용계마을에 '개구리 횡단보도'가 생겨 화제다.

습지 성공모델 마을인 용계마을 안길 주요 지점 3~4곳에 새로 생긴 횡단보도는 건너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사슴벌레·참게·무당벌레·누에 등이 그려져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구리나 사슴벌레가 금방이라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 같아 마을 안길을 통행하는 자동차들도 자연스레 조심하게 돼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비록 개구리 횡단보도가 비록 단순한 그림에 불과하지만 이곳 용계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의미는 남다르다. 용계마을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모델 시범마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개구리 전용 횡단보도'가 만들어 진 것은 지난해 말.

개구리 전용 횡단보도는 선운산여행문화원(대표 김수남)이 주관하는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귀농인, 마실가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인들이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회원들이 노면에 생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구리와 참게, 사슴벌레, 무당벌레 등을 직접 그렸다.

처음엔 그저 도로 노면에 단순한 그림을 생각을 했지만 고창군 생태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용계마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습지 보호지역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의 의미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는게 어떠냐'는 제안에 이같은 걸작(?)이 만들어 졌다.

군 관계자는 "개구리 횡단보도는 마을 방문객에게 생태마을로서 용계마을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기획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 이곳 용계마을에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생태시설을 설치해 생태관광 명물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산 용계마을은 최근 전북도 최초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품고 있어 4계절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